

# 금당 이재복의 선사상

김방룡\*

• 목 차 •

- I. 서언
- II. 용봉의 삶과 선(禪)
- III. 용봉대중사 전집에 나타난 용봉의 선사상
- IV. 시를 통해 바라본 용봉의 선사상
- V. 결어 : 용봉 선사상의 특징과 의의

---

\* 충남대 교수.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143-171.

## 한글요약

본고는 대전-충남지역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시인으로 알려진 금당 이재복(1918~1991)의 선사상을 밝힌 글이다. 이재복은 일제강점기 석전 박한영의 영향 아래 불교 근대화의 길을 찾기 위해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교학과 역경 및 문예 분야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 한국 불교태고종의 창종에 큰 역할을 하였던 이재복은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자와 시인 그리고 불교 대중화에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근현대 고승으로서 이재복의 위상이 확고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재복의 선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이다. 이재복의 선사상을 밝히기 위하여 그의 생애 및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그리고 금당의 시집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이재복의 삶과 사상 속에 드러난 선사상의 내용과 특징을 규명하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분단과 혼란의 시기를 살다 간 이재복의 삶은 승속(僧俗)을 초탈한 보살승이자, 선교(禪敎)를 아우르면서도 선사(禪師)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은 선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복의 선사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질곡 속에서 타자화되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고승들의 삶을 복원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 석전 박한영, 한국불교태고종, 현대 한국불교, 보문중고등학교, 대전불교연수원

## 1. 서언

본고는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을 추모하는 성격의 글이다. ‘추모(追慕)’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이다. ‘추모’란 살아생전 그분과의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떠올리며 그것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추모의 정은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서원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용봉대종사’란 승려로서 그 품계가 대종사의 지위에 올랐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스승인 석전 박한영으로부터 받은 ‘금당’이란 호는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이재복 선생’이란 보문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즉 교육자이자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다. 따라서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이란 호칭 속에 ‘인간 이재복’의 삶이 함축되어 있다.

무문 해개는 『무문관』에서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祖師關)을 뚫어야 하며, 오묘한 깨달음은 반드시 심로(心路)가 끊어져야 한다.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심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서는 정령일 뿐이다.”<sup>1)</sup>라고 말했다. 조사가 시설한 관문의 투득(透得) 여부가 선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봉 이재복’은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關門)’이다. 용봉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붙들고 한평생 진력하였으며, 대승 보살정신에 입각하여 불교의 현대화·대중화·생활화의 길을 제시하였다. 유마힐이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말했듯이 보살은 출가와 재가, 성과 속, 나와 남이 둘이 아닌(不二) 세계에서 노

1) 宗紹編, 『無門關』(大正藏48, 292c),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絕. 祖關不透 心路不絕 盡是依草附木精靈.”

니는 사람을 말한다. 용봉의 삶이 바로 그러한 보살의 삶이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봉’이란 관문을 뚫어야만 근현대 한국불교가 바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눈뜬 사람, 크게 눈뜬 사람’이라고 금당 이재복 선생을 정의한 류철노는 「교육자로서의 금당」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선생님은 출가할 필요도 입산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 ‘용봉은 눈뜬 사람, 크게 눈뜬 사람’이라고 하였듯이, 처음부터 세속에 뛰어들어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되뇌이며, 도리어 산사(山寺)도 하산하여 도심 속의 연수원으로 바꿀 것을 강조하였다. 세상의 제자들은 모두 성불(成佛)할 큰 제목이니 좁은 강당을 크게 넓혀 수천 수만을 깨워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심 많은 선생님이었고,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나서 ‘하화중생(下化衆生)’ 따르 하는 그것도 마다하시고, 통째로 한 번에 하셔야 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시다. ‘용봉은 눈뜬 사람, 크게 눈뜬 사람’, 크게 눈떠서 직지(直指)한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평생 사업인 교육사업이다.<sup>2)</sup>

위의 글에는 금당 선생의 인물됨과 교육관이 잘 드러나 있다. 또 김영호는 금당 이재복의 삶과 문학을 ‘겸허함과 밑거름의 미학’이라 정의하고, 이재복의 시의 특징을 “이재복은 시를 절묘한 언어 표현으로 보는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실에 이르기 위한 사고 과정으로 보는 본질주의적 관점을 취한다.”<sup>3)</sup>라고 말한다. 이어 금당 스스로 밝힌 다음과 같은 시관(詩觀)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시문(詩文)을 기다림은 수난의 오늘을 정확히 전망하며, 오히려 절망적인 그 속에 요구되는 새로운 생존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하여 이미 있

2)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8 - 추모·유품집』, pp.61-62.

3) 이재복 저, 김영호 엮음,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작은숲출판사, 2019, p.174.

어 온 서정과 기교를 차라리 경원(敬遠)하고, 진실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생각하는 시가 이루어지기를 스스로 기약하는 바이다. 오히려 절망적인 그 속 깊이요 요구되는 생존의 새로운 입상(立像)을 부조(浮彫)하기 위하여.<sup>4)</sup>

위에 나타난 금당의 ‘시관’에는 그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교를 경원하고 진실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류철노와 김영호는 모두 금당 이재복 선생이 살아생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분들로서 이들의 글 속에서 교육자와 시인으로서 금당 선생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아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 다른 하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으로 탄생한다. 정신적 탄생이야말로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다. 금당 이재복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대전·충남지역에 있어서 ‘금당 이재복 선생’ 즉 시인과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용봉대종사’ 즉 승려로서 최고의 품계인 대종사로서의 면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근현대 고승으로서 용봉 이재복에 대해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또한 교학에 대단히 밝은 학승으로는 알고 있지만, 선사(禪師)로서의 용봉과 용봉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깊이 천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선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봉의 수많은 법문 또한 분명 그의 선 체험 혹은 선적(禪的) 자각에 기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주제는 용봉의 삶과 사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

4) 위와 같음.

## II. 용봉의 삶과 선(禪)

중국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승려로는 한산과 습득이 회자되고, 한국인에게 석가모니 후신불로 추앙되는 선사로 진묵이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전혀 ‘선사(禪師)답지 않다’는 점이다. 진정한 선사란 ‘선사다운 자’가 아니다. 유마는 “만약 보살이 비도(非道)를 행한다면 불도(佛道)에 통달한 것이다.”<sup>5)</sup>라고 말한다. 남송 대 유행했던 막행막식하는 광선(狂禪)의 폐풍을 비판하고 경계하였던 주자의 선관(禪觀)에 경도된 유학자들이나, 화두를 들고 ‘동정일여·몽중일여·오매일여’의 삼관문을 돌파한 후 명안종사로부터 인가받아야만 진정한 선사라고 말하는 틀에 갇힌 간화선 수행자들이나, 신비에 쌓인 선사들의 허상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불교 신자들이나, ‘선사’의 상(像, 相)이 굳어져 있는 학자들에게 ‘선사답지 않은 선사’는 단지 비판의 대상일 뿐, 그의 외형이 아닌 내면 깊이 간직된 진면목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류칠노의 글에서는 이재복 선생의 교육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선생님의 교육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감에 있는 것 같다. 소중하고 존엄한 한 인격 인격들이 타고난 대로 온전히 다 드러나, 유감 없이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고, 성불(成佛)의 길인 것이다. 세계의 주인은 나이며, 나의 주인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바르게 닦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며, 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스승이며, 교육이라는 것이다.<sup>6)</sup>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자의 모습을 하고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방안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제접하여 각자의 마음이 바로 참 부처

5) 鳩摩羅什譯, 『維摩詰所說經』, 「佛道品第八」(大正藏14, 549a), “維摩詰言。若菩薩行於非道 是爲通達佛道。”

6)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8 - 추모·유품집』, p.70.

[卽心卽佛]라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 시대 선승(禪僧)의 한 전형을 볼 수 있다.

선사(禪師)가 선방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아니 선방을 고수하는 선사야말로 혜능과 마조가 강조한 선의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혜능은 ‘일행삼매(一行三昧)’를 강조하였고, 마조는 ‘평상심이 도이다[平常心是道]’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본래심(진심, 직심)을 실천하는 것이 선(禪)임을 천명한 말이다.

돈황본 『단경』에서 혜능은 ‘일행삼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행삼매(一行三昧)’란 모든 때 즉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직심(直心, 곧은 마음, 순수한 마음, 본래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직심(直心)이 도량(道場)이요, 직심이 정토(淨土)다”라고 하였다. 마음에 아첨하고 빠뜨려진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공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直心)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오직 직심으로 행동하고 모든 법(法, 삼라만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들은 삼라만상의 모양을 고집하고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직심이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망심(妄心)을 제거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말한다.<sup>7)</sup>

또 마조는 ‘평상의 마음 그대로가 도이어서 특별히 닦을 필요가 없이 오직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된다[道不用修 但莫污染]’라고 말한다.

7) 法海集記, 『(돈황본) 壇經』(大正藏48, 338b), “一行三昧者 於一切時中行住座(坐)臥 常眞(直)心是. 淨名經云 眞(直)心是道場 眞(直)心是淨土. 莫心行諂典(曲) 口說法直. 口說一行三昧 不行眞(直)心 非佛弟子. 但行眞(直)心 於一切法上無有執著 名一行三昧. 迷人著法相 執一行三昧 眞心座(坐)不動 除妄不起心 卽是一行三昧.” : ‘座(坐)’와 같이 ( )속에 넣은 글자는 본의에 맞게 수정한 것임. 또 수정한 것에 의거하여 해석하였음.

그리고 평상심이란 ‘조작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취사하지 않으며 단견과 상견이 없고 범부와 성인도 없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범부처럼 행세하지 않고 성현처럼도 행세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란 경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sup>8)</sup>

현재 불교계에는 경허와 만공·한암·효봉·성철 등 근현대 한국불교를 꽃피운 뛰어난 선승들의 출현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선승’·‘선사’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혜능의 일행삼매와 마조를 평상심시도를 언급한 것은 조사선의 본래정신에 의거하여 선의 본질과 그 본질을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선사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그러할 때 그 ‘선사’의 범주 속에 ‘용봉’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1970년 이후 전개된 한국불교의 역사는 조계종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었다. 1954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1, 2차 ‘비구-대처 분류’는 그것을 ‘정화’라 명명하든지 혹은 ‘법난’이라 명명하든지와는 무관하게, 승자인 비구(선원 수좌)에 의해 현대 한국불교가 전개되었고, 그들의 관점에 의하여 현대 한국불교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용봉의 삶 또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승자가 아닌 패자의 입장이 된 용봉의 삶은 꿈꾸었던 방향과 다르게 크게 굴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현은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 사판승과 대처승의 퇴조」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근대 시기에 들어 대처 여부가 사문(沙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다. 이 잣대가 얼마나 공정하고 유효한가 하는 점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새로 생겨나고 그것을 들이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타자화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

8) 道一, 『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卍續藏經119, 812a), “示衆云 道不用修 但莫污染. 何爲污染. 但有生死心 造作趣向 皆是污染. 若欲直會其道 平常心是道. 何爲平常心. 無造作 無是非 無取捨 無斷常 無凡無聖. 經云 非凡夫行 非聖賢行 是菩薩行.”



이다. 이관은 더욱 이관스러운 모습으로 남기 위해 사관스러운 행적들이 세탁되었고, 사관은 더욱 사관스러운 모습으로 폄하되기 위해 이관스러운 행적들이 지워졌다. 독신과 대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문제는 누가 남았고 누가 지워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와 역할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묻힌다는 점이다.<sup>9)</sup>

2008년의 글이니, 그동안 박교수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위의 글을 인용한 의도는 용봉이 ‘현대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타자화되었다’거나, ‘만약 분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불교계에서 더 큰 두각을 나타내었을 거’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용봉의 삶을 추적해 보면 불교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용봉은 내적 성숙을 기할 수 있었고, 산사가 아닌 도심 포교당으로 내려와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게 되었다.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이 저술한 『선사상』 가운데 ‘똥막대기’ 장에는 이러한 말이 수록되어 있다.

이야기를 시초로 되돌린다. 식욕과 배설에 불법(佛法)의 대사(大事)를 보는 사상은 마조 이후 선의 특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 달마로부터 시작되는 선사상은 여기에 이르러 더 극에 달한다. 이 이상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는 것이다. 선(禪)은 선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 선은 일상생활 자체가 된다. 인생 탐구의 도(道)였던 선은 인생 자체의 진실에 바톤을 넘겨 준다. 선답지 않을 것을 참다운 선이라 한다면, 허울은 좋으나 실은 동시에 무서운 퇴폐가 시작되는 것이다.<sup>10)</sup>

운문의 ‘간시궤(乾屎橛)’을 통해 야나기다 세이잔이 마조 이후 선의 특징과 문제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

9) 박재현,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 사관승과 대처승의 퇴조」, 『철학사상』 28,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8, p.132.

10) 柳田聖山 저, 서경수·이원하 역, 『선사상』,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 1984, p.110.

의는 생략하고, 만약 누군가 용봉에게 “일상생활과 하나가 되면서도 무서운 퇴폐를 벗어날 수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용봉은 과연 무어라 대답했을까.

용봉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우(不遇)하고 불운(不運)한 일생이었다. 태어나 얼마 안 되어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가난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의 삶에는 큰 전환점이 세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아니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출가를 단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스승이자 정신적 아버지였던 석전 박한영의 손에 이끌려 박대륜의 문하에 법제자로 들어간 것이며<sup>11)</sup>, 세 번째는 비구-대처의 분규의 과정을 겪으면서 중앙이 아닌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시인과 교육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한 결단이었다.

‘선’이란 지극히 실존적인 고뇌에서 출발하여 대자유의 무사인(無事人)의 모습으로 완성된다. ‘실존’과 ‘대자유(무사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선사의 내면과 외향의 상반된 모습이다. 용봉에게 있어서 내면의 모습은 고뇌에 찬 ‘실존’의 모습이지만 그 외향은 대자유나 해탈이 아닌 ‘겸손·경외·무욕’의 모습으로 표출된다.

1946년(29세) 이재복이 쓴 ‘어느 날’이란 시가 있다.

가난도 재앙이라 말다툼이 늘 잦았다  
안해는 뽕족해지고 나는 먼 산 바라보고  
어린 늙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서 있다.

11) 윤청광이 쓴 『고승열전 영호 큰스님』을 보면 석전 박한영을 가장 가까이서 시봉하였던 애제자가 바로 용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전은 직접 서울 법련사(당시 유점사 서울포교당)에 있던 박대륜 스님에게 데려가 그의 문하에 있게 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아마도 이때가 용봉으로서는 해화전문학교의 학비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석전을 떠나 대륜의 문하에 몸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만 홀로 그럴테나 남도 매양 이럴 것을  
스스로 마음 녹여 짜증을 달래자니  
피어문 담배연기만 온방 자욱 어린다.<sup>12)</sup>

연보에 의하면 이때 장남 동원이 3살이었고, 장녀 동순이 태어난 해이다. 해방이 되던 해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보문중학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때 교장 서리를 역임하면서 보문초급중학교를 설립하였다.<sup>13)</sup> 그런데 당시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가 위의 시엔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또 이 해(1946년) 쓴 ‘기도’란 시가 있다.

세월이란 차라리 욱된 것, 치우쳐 선(善)한 사람들만이  
고난(苦難)의 수레를 밀어가는 이 냉혹(冷酷)한 거리인가  
하옵는데  
호을로 일어 회한(悔恨)에 녹아 흐르는 촉(燭)불 지키옵고  
지루한 어둠을 세우옵나니  
이 아침 내 가난한 문살을 더듬어 아련히 트여오는 맑은  
뜻을 무에라 사뵈오리까.  
보살(菩薩)하.  
나로 하여금 새옷을 갈아 입게 하소서.<sup>14)</sup>

위의 시에서 보이는 ‘내 가난한 문살을 더듬어 아련히 트여오는 맑은 뜻’에서 용봉이 스스로의 삶에 얼마나 철저한지를 엿볼 수 있고, ‘새옷을 갈아 입게 하소서’란 기도에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2)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앞의 책, p.21.

13)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 : 빈 배엔 달빛만 가득하고』, pp.36~37.

14)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앞의 책, p.20.

### Ⅲ. 용봉대종사 전집에 나타난 용봉의 선사상

조선의 억불상황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불교계는 ‘근대’와 직면했다. 근대 시기(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복원 계승하여 그 정체성을 세우는 문제와 격변하는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불교의 근대화를 꾀하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정체성 회복’과 ‘불교 근대화’의 길은 승려들의 자각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지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 시기 불교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두 고승이 있었으니, 한 분은 경허 성우이고 다른 한 분은 석전 박한영(영호 정호)이었다. 경허는 뛰어난 선승이었고, 석전은 뛰어난 교학승이었다. 경허는 선과 교를 겸하였고, 석전은 교학과 문예를 겸하였다. 간화선을 통한 ‘정체성 회복’의 정점에 경허가 있었고, ‘불교 근대화’의 정점에 석전이 있었다. 그리고 경허가 떠난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 공간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는 석전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해방 직후 ‘조선불교’의 교정에 석전이 추대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용봉은 바로 그 석전 박한영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거목으로 불교 교학과 문학, 역경 사업 및 애국 애족에 대한 열의 등은 모두 석전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다.

비구-대처의 분류는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경허가 제시한 ‘정체성 회복’의 대안과 석전이 제시한 ‘불교 근대화’의 대안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엄중한 과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버렸다는 점에서 큰 아픔과 아쉬움을 남긴다. 석전과 용봉에게는 친일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불교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 불교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전과 용봉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만해에게 가장 큰 정신적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석전 이었고, 용봉이 만해와 긴밀히 교류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1940년 용봉이 쓴 ‘조국’에서 “마지막 한마디 외오쳐 부를 무서운 선서, ‘자유 조국을 위하여’”<sup>15)</sup>라고 노래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러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비구-애국, 대처-친일’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용봉 대중사 전집을 통해 용봉의 선사상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용봉 스스로 자신을 선사로서 여기지 않았으며, 당시 간화선 수행에 전념하였던 선원 수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연보에 “출가 후 마곡사에서 5년간 수선 안거하였다.”<sup>16)</sup>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선 수행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출가 후 그의 삶은 사집, 사교, 대교 과정을 거치고 해화전문대학에서 근대 불교학의 방법론에 의해 초기불교와 대승의 반야, 유식, 법화, 화엄, 선, 정토의 교학을 익히고, 아함과 니까야 그리고 비판불교 및 서양철학에 이르기까지 불교 교학과 근대 학문에 천착하였다. 그에 있어서 선사상은 대승불교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었고, 선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용봉 대중사 전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격이다. 이는 선사의 어록이 아닌 불교 교학을 중심으로 한 강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한 송하섭은 간행사에서 이 책의 발간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전집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면서 우리들은 큰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20여 개의 법문(강의) 테이프, 3000여 회의 설법 자료, 시 등

15) 위의 책, p.65.

16)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1 : 빈 배엔 달빛만 가득하고』, p.35.

문학작품 300여 점, 약 1만여 매의 자료 카드, 서필 등 수 많은 유품, 실로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자료는 다행히 선생의 아드님 이동녕 교수가 차분히 모아 놓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했을 것인지 마음이 서늘할 지경이었습니다.<sup>17)</sup>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범문 테이프와 설법자료 그리고 문학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용봉의 선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설법자료 또한 설법한 내용을 녹취하여 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설법 시 대중들에게 주제에 맞게 제공한 경전에서 발췌한 원문들이어서 실제 강연에서 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그 내용들이 실로 방대하고 핵심적인 경전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전에 대한 높은 안목은 학문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분명 선에 대한 체험이 내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염두에 두고서 전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사상에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집 1권에는 전북불교대학에서 강의한 「대승불교 사상 9」에서 『육조단경』에 나타난 혜능의 생애 및 혜능과 신수의 계승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혜능의 해석의 뛰어난 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sup>18)</sup> 또 불교연수원에서 행한 일요법회 강연에서는 반야다라와 달마의 문답과 달마와 양무제의 문답이 실려 있다.<sup>19)</sup> 여기에서는 달마가 말한 ‘불식(不識)’에 대하여 “지적인 것을 떠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삼근’과 ‘구자무불성’의 화두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집 2권에서는 육바라밀 가운데 ‘선정바라밀’에 대하여 행

17) 위의 책, p.8.

18) 위의 책, pp.186-192.

19) 위의 책, pp.424-427.

한 16개의 강연 내용을 실고 있다. 여기에는 『보조법어』·『선관책진』·『선가귀감』·『권수정혜결사문』·『수심결』·『달마대사혈맥론』·『선원제전집도서』 등과 함께 세키구치 신다이(關口眞大)의 『선이란 무엇인가(禪とは 何か)』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용봉이 『선문촬요』와 사집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은 물론 선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어 전집 6권에서는 1968년 대전불교회에서 강연한 ‘이심전심’<sup>20)</sup>과 1974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충청지구 기념법회에서 행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以心傳心)’<sup>21)</sup>이란 강연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무문관』과 『경덕전등록』 가운데 ‘석가모니불·황벽의 『전심법요』·조주 종심·현사 사비’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전집 7권에는 ‘미소·석가세존 성도절에’라는 강연에서 “정말로 진실한 도리는 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제 몸소 체험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 스승과 참 제자 사이에는, 말씀이나 글자 같은 것을 의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써 마음을 전하는, 이심전심의 도리인 것이다.”<sup>22)</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염화미소’의 선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용봉 대중사 전집에는 선사상과 관련한 내용이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봉이 항상 석존이 가섭에게 전한 이심전심과 달마와 양무제의 문답에 나타난 ‘무’와 ‘불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방대한 교학의 밑바탕에는 석존의 선을 통한 깨달음

20)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6 :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네』, p.407.

21) 위의 책, pp.436~438.

22)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 : 침묵 속에 끝 없는 길이어』, p.482.

이 자리하고 있다는 선관(禪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깨침과 더불어 육바라밀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길임을 천명한 것이다.

#### IV. 시를 통해 바라본 용봉의 선사상

용봉의 시는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용봉대종사 전집 7권에 실린 것과 김영호가 엮은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문학 비평가로서 금당의 시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불교학도로서 용봉의 시에 스님의 선사상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禪)과 시(詩)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의자 혜심, 태고 보우, 나옹 혜근, 부휴 선수, 청허 휴정, 경허 성우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은 뛰어난 시인이었다. 이들 선승들의 시를 ‘선시(禪詩)’라 하여 시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듯이,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선은 그 경지를 시를 통해 형상화하는 것이 한 특징이다. 이는 시인으로서 금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금당의 시가 엄밀한 의미에서 ‘선시’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문학비평가가 아닌 논자의 입장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 금당의 시에 나타난 선(禪)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한 정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은봉은 「금당 이재복 시의 정신지향」에서 ‘이재복의 시는 지성이나 영성에 기초한 차가운 관조를 통해 그 나름의 심미적인 특징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그가 시를 통해 끊임없이 성스러운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 데에서 기인한다’<sup>23)</sup>라고 말한다. 또 ‘이재복 시인이 가장 황

23) 이은봉은 「금당 이재복 시의 정신지향」,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성한 창작 활동을 보인 시기는 1940년대 말에서부터 1960년대 말까지이며, 70년대 들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붓을 거두어 들인다.’<sup>24)</sup> 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은 용봉의 시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가 선의 세계임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70년대는 분규의 결과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종된 시기로 이 시기 용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성스러운 가치, 영적인 가치’란 한마디로 선의 세계이다. 이는 용봉의 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는 다음의 「정사록초 25」이다.

不立文字  
막막한 이 골목에  
오직 하나  
活路를 위하여

푸른 눈시울로 나는  
나의 벽을 향해  
마주 서 있습니다.<sup>25)</sup>

여기에서 ‘오직 하나 활로’는 바로 마음이다. 황벽은 『전심법요』에서 “단지 하나인 마음[一心]을 깨달을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다. 이 하나인 마음이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하나인 마음으로서 다름이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 뒤섞임도 없고 부서짐도 없으며, 마치 큰 태양과 같이 사방의 하늘과 땅을 두루 비친다. 태양이 떠오를 때에 밝음이 하늘과 땅에 두루하더라도 허공은 밝은 적도 없고, 태양이 가리

전집 8 : 아직도 그윽한 님의 향기-법열의 자아와 절대의 세계』, p.101.

24) 위의 책, pp.104-105.

25) 이재복, 「정사록초 25」,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 : 침묵 속에 끝없는 길이어』, p.58.

았을 때에 어둠이 하늘과 땅에 두루하더라도 허공은 어두운 적이 없다.”<sup>26)</sup>라고 말한다. 이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心卽是佛 佛卽是衆生]’라는 선의 핵심을 잘 드러낸 말이다.

부처와 중생, 색과 공이 둘이 아닌 하나인 마음의 세계가 용봉의 시에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항아리」에는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모든 것은 다 어둠에서 태어나  
언젠가는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나와 나의 것을 버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자유를  
담담한 얼굴을 하고 지켜보는 자 있으니

마침내 빈손으로 돌아올 가을  
‘색(色)’과 ‘공(空)’을 함께 머금은  
그 한아름 둥그런 윤곽을  
내 가슴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떠오려 본다.<sup>27)</sup>

위의 시에서 ‘어둠’은 황벽이 말한 ‘허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색(色)과 공(空)을 함께 머금은 그 한아름 둥그런 윤곽’은 바로 ‘하나인 마음[一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징시웅(吳經熊)은 『선의 황금시대』의 서문에서 선의 시원이 ‘염화 미소’에서 시작되었다고 소개한 후, 다음에 같이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26) 希運, 『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大正藏48, 380a), “但悟一心 更無少法可得. 此卽眞佛 佛與衆生一心無異. 猶如虛空無雜無壞 如大日輪照四天下. 日升之時明遍天下 虛空不曾明 日沒之時暗遍天下 虛空不曾暗.”

27) 이재복, 「항아리」,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앞의 책, p.160.

이렇게 해서 선은 한 송이 꽃과 미소에서 태어났다. 당신은 이 일화가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아름답다고 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아름답다. 선의 참맛은 역시 어떤 역사적 사실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비록 누군가가 이 일을 지어냈다 해도 그는 선의 정수를 꿰뚫었음이 틀림없다.<sup>28)</sup>

역사 속의 수많은 선사들은 ‘염화’와 ‘미소’를 통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선에 매료되어 거기에 자신의 삶을 불살랐다. 김영호는 용봉의 시에 나타난 한 특징을 “이렇듯 그의 시 상당 부분은 하나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변주(變奏) 되는데, 이는 그의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sup>29)</sup>라고 말한다. 그 변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꽃’이다. ‘꽃’은 용봉에게 있어 ‘연(蓮: 연꽃)’, ‘꽃밭’, ‘꽃그늘 부처님’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선의 시원인 ‘염화미소’에 등장하는 연꽃을 말하는 것이다. 「선심속어(禪心俗語)」 가운데 ‘꽃 1’이란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꽃은 꽃이 아니라.  
말씀으론 이를 수 없는 자리에서,  
부처님은 문득 꽃을 들어 뵈었나니,  
상좌 가섭의 얼굴에 슬기론 미소.  
비로소 환한 빛깔로 트이고 맑음이 맑음으로 읊기는 이심전심.  
그 미소 한 번 만나기 위하여 나는 또 몇 만겁을 두고 되살아나야 하나.  
하루살이의 목숨으론 감당키 어려운 은혜라면,

28) 吳經熊 지음, 류시화 옮김, 『선의 황금시대』, 경서원, 2001, p.20. 이 책은 1967년 ‘The Golden Age of Zen’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책으로 류시화가 1986년 처음 번역하여 경서원에서 출판하였다. 여기의 인용문은 개정판에서 인용한 것이다.

29) 김영호, 「겸허함과 밀거름의 미학 - 금당 이재복의 삶과 문학」,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앞의 책, p.107.

아름다운 마음이사 고운 향기로 넘쳐흐르나니,  
온갖을 머금은 오묘한 사랑의 꽃이어.  
그것은 정말 물음이랄 것인가 대답이랄 것인가.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꽃은 꽃이 아니리라.<sup>30)</sup>

용봉의 대표적인 시는 50수에 달하는 연작시 「정사록초(靜思錄抄)」이다. ‘정사록’이란 말은 ‘고요함 속에서 생각한 기록’이란 뜻이다. 이는 ‘선정(禪定)’에 들어 바라본 세계에 대한 기록’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선시이다. 1957년에 쓴 「정사초록 1」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한밤에 외로이 눈물 지우며 발돋움하고 스스로의 몸을  
사르어 무거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보라. 이는 진실로  
생명(生命)의 있음보다 생명(生命)의 연소(燃燒)가 얼마나  
더한 영광(榮光)임을 증거(證據)함이니라.<sup>31)</sup>

위의 시에서 용봉은 촛불을 들어 ‘생명의 있음보다 연소가 영광의 증거’라 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의 세계를 직시하는 금당의 통찰력, 이에는 곧장 삶의 본질·근본을 향해 다가서고자 하는 선사로서의 용봉의 안목이 잘 드러나 있다. ‘촛불’은 꽃과 같이 여러 시에서 번주되고 있는데, 「정사록초 14」에서는 “바람도 없는 고요에 하르르 떠는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뇨”<sup>32)</sup>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정사록초」에는 ‘거울’과 ‘연(蓮)’ 등을 소재로 용봉이 본 선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정사록초 13 -거울」에서는 “한 번이라도 티없이 맑은 마음과 마주 앉고 싶다. 구슬의 영롱함이 또한 옆의 구슬에 사무치듯 서로가 속속들이 비추이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과 밖은 하나로

30) 이재복, 「선심속어」, 위의 책, p.143.

31)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앞의 책, p.136.

32) 위의 책, p.138.

트인 그대로의 무한일래.”<sup>33)</sup>라고 노래하고 있고, 또 「정사록초 22」에서  
는 연꽃을 소재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연(蓮)은  
더러움을 위해 피는  
꽃

부처님은 오히려  
죄(罪) 있는 이의  
편

연(蓮)꽃 좌대 위에  
부처님은  
웃으시는데

나는  
죽음이야  
바람에 밀리는  
물살

손가락 하나로  
영원(永遠)을  
가리키면

천상(天上)  
천하(天下)에  
나 홀로  
높으니라  
나 홀로 높으니라<sup>34)</sup>

---

33) 이재복, 「정사록초 13-거울」, 『용봉 대중사 금당 이재복 선생 전집 7 :  
침묵 속에 끝 없는 길이어』, p.44.

이상으로 볼 수 있듯이 용봉의 시에는 본래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된 그 불성을 깨달아야만 참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메시지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이미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사록초 17」에서 “여러 가지 먼 것으로부터 지켜 있는 이 고요를 절망과 구원의 사무친 하늘을 흔들어 어느 비유의 우렁참으로 깨우쳐 줄 새벽을 믿으랴. 텅 비인 나의 가슴의 종이여.”<sup>35)</sup>라고 노래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표출된다.

## V. 결어 : 용봉 선사상의 특징과 의의

본고는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의 선사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승려와 시인과 교유자로의 모습을 나투고 간 인간 이재복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선(禪)이요, 선사(禪師)답지 않은 선사로서 근현대 한국 생활선을 개척한 선사의 한 전형을 용봉이 보여 주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一切唯心造)’라는 말처럼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 서로 다른 의식은 서로 다른 층위(세계, 界)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마치 껍질을 벗겨내면 또 다른 껍질과 마주하는 양파와도 같이 허망한 의식이 구축한 존재의 세계는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한 껍질을 벗겨낸 순간 마주 대하는 또 다른 껍질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곤 한다. 갑갑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의 하나가 ‘선(禪)’이라 할 수 있다. 용봉은 그러한 ‘선’에 대하여 ‘선심속어(禪心俗語)’에서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꽃은 꽃이 아니

34) 이재복, 「정사록초 22」, 『꽃밭 금당 이재복 시선집』, 앞의 책, pp.157-158.

35) 이재복, 「정사록초 17」, 위의 책, p.150.

리라.”라고 노래했던 것이다.

『반야심경』에 ‘불구부정(不垢不淨)’이란 말이 있다. 문맥상의 의미는 모든 존재를 공의 차원으로 바라보면[諸法空相]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본 세계가 ‘깨끗하지도 않은’ 것일까? 물론 ‘더럽고 깨끗함이란 ‘분별상(分別相)’·‘분별심(分別心)’을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세계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용봉은 ‘꽃밭’에서 그러한 존재의 실상을 “노란 꽃은 노란 그대로 하얀 꽃은 하얀 꽃대로 피어나는 그대로가 얼마나 겨운 보람인가”<sup>36)</sup>라고 노래했다.

또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말이 있다. 실체가 없다는 연기적 사유 속에서 색은 곧 공이지만[色卽是空] 그 공의 세계는 색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진리를 구체적인 삶[色]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에 ‘공즉시색’이란 말은 공허해 보이는 삶을 ‘공(空)’의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이다. 용봉은 그 ‘공(空)’을 ‘영(零)’이라 바꾸어 표제를 정하고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또 구성(構成)시키는 너는, 절망에서 구원으로 통하는 미지(昧知)의 문이었다.”<sup>37)</sup>라고 노래했다.

근현대 시기 ‘교학과 선’의 두 방면에 있어 남다른 경지에 올랐던 용봉이었지만, 현 불교계에 있어서 그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그러나 그 ‘희미한 존재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진실한 용봉의 삶과 명징(明澄)한 그의 정신을 입증하는 표징(標徵)이다. “명승이라 해서 다 고승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에 회자되는 허명(虛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용봉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을 정리한다면, ‘존재하고 있는 그대

36) 이재복, 「꽃밭」, 위의 책, p.95.

37) 이재복, 「영(零)」, 위의 책, p.103.

로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그러한 생명성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변화해 가는 역사에 대한 참여의식, 아상(我相)의 울타리를 깨고 진아(眞我)·대아(大我)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교적 관점으로는 '불성사상, 불교 근대화, 생활불교(보살정신)'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해방·분단·6.25·민주화와 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진 근현대 격변의 시기 속에서 한국불교는 전통회복을 통한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 개혁'이란 두 가치가 충돌·경쟁하면서 성장해왔고, 다른 한편으로 기득권 유지와 황금만능주의에 매몰되어 분란과 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후자는 논외로 하고 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용봉이 선택한 것은 석전과 용성과 만해와 운허 등이 주도했던 '불교 개혁'의 방향 길이었고, 그것은 불교 근대화와 생활선의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용봉은 출가 후 전통 강원에서 사집·사교·대교의 과정을 마치고 또 한문 서숙에서 유가 경전 7서를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하지 않고 혜화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근대 불교학을 공부하였다.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마곡사에서 수선 안거에 참여하였지만, 이후 선원을 찾아 간화선 수행을 한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 불교 강사를 하고 또 역경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고, 포교사의 양성과 교육을 전담하고 대전불교연수원을 설립하여 불교 포교에도 앞장섰지만, 특별히 선 수행을 지도하거나 간화선 수행을 강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선사로서의 용봉의 모습과 용봉의 선사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도단·심행처멸의 선의 세계가 선원 수좌들의 전유물일 수 없고, 즉심즉불과 평상심시도의 선사상이 정형화된 형태로 표출될 수는 없다. 선의 세계는 정형화된 모습을 용납하지 않기에 다양한 모습



으로 표출될 수 있다. 또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라는 보조와 서산의 말처럼, 용봉이 언급했던 수많은 경전 속에는 선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용봉에게서 근현대 선원 수좌들의 선풍이 보이지 않거나, 용봉이 선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봉의 선 혹은 용봉의 선사상을 논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용봉 선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현시점에서 무어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본고는 용봉의 선사상 연구에 대한 시론(試論)적 성격의 글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하즉시(當下卽是)와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조사선 정신이 용봉의 삶과 시(詩) 속에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용봉 이재복 선생’을 ‘선사 용봉’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은 용봉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는 물론 근현대 한국선,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1 : 빈 배엔 달빛만 가득하고』.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2 :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3 : 미움도 사랑도 벗으라네』.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4 : 말을 타면 발은 쉬어야지』.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5 :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가네』.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6 :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네』.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7 : 침묵 속의 끝없는 길이어』.  
『용봉 대종사 이재복 선생 전집 8 : 아직도 그윽한 님의 향기』.  
鳩摩羅什譯, 『維摩詰所說經』, 大正藏 14.  
道 一, 『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 卍續藏經 119.  
法海集記, 『(돈황본) 壇經』, 大正藏 48.  
宗紹編, 『無門關』, 大正藏 48.  
希 運, 『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 大正藏 48.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柳田聖山 著, 서경수·이원하 역, 『선사상』,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 1984.  
吳經熊 지음, 류시화 옮김, 『선의 황금시대』, 경서원, 2001.  
윤청광, 『고승열전 영호 큰스님』, 우리출판사, 2002.  
이재복 著, 김영호 엮음, 『꽃밭-금당 이재복 시선집』, 작은숲출판사, 2019.  
이재복, 『靜思錄抄』, 문경출판사, 1994.  
자현 외 7인, 『석전 영호대종사,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지다』, 조계종출판사, 2015.  
종결·해봉 공저,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 석적 박한영』, 신아출판사, 2016.  
玄惺편, 『映浩大宗師語錄』, 동국출판사, 1988.  
김광식, 『석전과 한암의 문제의식』, 『석전 영호대종사』, 조계종출판사, 2015.  
김방룡, 「석전 박한영에 미친 보조선의 영향」, 『보조사상』 56, 보조사상연구원, 2020.

- 김방룡, 「금당 이재복의 생애와 불교사상의 특징」, 『충청문화연구』 14,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5.
- 김방룡, 「우리 시대의 보살승, 용봉 재복」,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작은숲출판사, 2020.
- 김창숙(효탄), 「石顛 朴漢永의 생애와 불교사상」, 『불교평론』 44,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 박재현,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 사관승과 대처승의 퇴조」, 『철학사상』 28,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8.
- 송하섭, 「금당 이재복론」, 『대전문학』 4호, 한국문인협회 대전지부, 1991.
- 윤 성, 「노사의 학인시절 : 우리 스님 石顛 朴漢永 스님」, 『불광』 83, 1981.
- 이은봉, 「李在福 시의 정신차원-법열의 자아와 절대에의 의지」, 『한국문예비평연구』 3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 최원규, 「스승 금당의 문학세계」, 이재복 시선집 『靜思錄抄』, 문경출판사, 1994.
- 황의동, 「교육에 바친 일생, 금당 이재복 선생」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작은숲출판사, 2020.

## Abstract

The Great Master Yongbong, Geumdang Lee Jae-bok's Seon Thought

Kim, Bang-ryong  
(Professor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reveals Seon thought of Geumdang Lee Jae-bok (1918~1991), known as a representative educator and poet in the Daejeon-Chungnam area. Under the influence of Seokjeon Park Han-young in Japanese colonial era, Lee Jae-bok made great efforts in the fields of Buddhist studies, Buddhist scripture translation, and literature with the heart of patriotic love to find the way to modernize Buddhism. Lee Jae-bok, who played a major role in the founding of the Taego order of Korean Buddhism after liberation, left a great mark on educators, poets, and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in the Daejeon-Chungnam area.

In the reality that Lee Jae-bok's status as a modern high monk is not firm, research on Lee Jae-bok's Seon thought is an unexplored field. In order to reveal Lee Jae-bok's Seon thought, the writer analyzed his life, 『The Great Master Yongbong, Lee Jae-bok's collection』, and the poetry of Geumdang, and then identifi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eon thought revealed in Lee Jae-bok's life and thoughts through this work.

It can be said that Lee Jae-bok, who lived in a period of division and chaos after Japanese colonial era and liberation, was a Bodhisattva who transcend the sangha and the vulgar and a Seon master who was not bound by the appearance of a Seon master while encompassing

Seon school and doctrinal school. Therefore, attempts to identify Lee Jae-bok's Seon thought can be said to be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lives of the ancient monks who are otherized in the fetter of modern Korean Buddhism and disappearing from our memories.

**Key words**

the great master Yongbong, Geumdang Lee Jae-bok, Seokjeon Park Han-young, Korean Buddhism Taego order, modern Korean Buddhism, Bomun Middle and High School, Daejeon Buddhist Training Center

논문투고일 : '24. 4. 29. 심사완료일 : '24. 5. 22. 게재확정일 : '24. 5. 22.